

거짓말하면 미혹에 빠진다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1>

오계의 네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언어 생활의 진실성과 신뢰를 강조한 가르침이다.

(수다니파리)에는 다음과 같은 계상이 전해진다. "들이 있을 때도, 여럿이 같이 있을 때도,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해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또 <오계상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나는 가지가지로 거짓말하는 것을 꾸짖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를 칭찬했다.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일부터 거짓말을 하겠는가?"

말하거나, 우리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을 말하게 된다. 그러나 깨어 있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불자는 아무것도 모르던 '아는 것이 없다' 하고, 알고 있다면, '안다'고 대답한다. 아무것도 본 것이

안 계시다 하고, 계시지 않을 때는 계시다 하며, 곧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기뻐하였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라훌라에게 물을 따오게 하여 자신의 발을 씻기 다음 말하였다.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가?"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

"발을 씻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라훌라야, 너도 이 그릇과 같다. 사문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마음 속에 도를 뒤엎 짓이 없으므로 더러운 물을 담았던 그릇과 같은 것이다.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을 담을 수는 없느니라."

부처님은 라훌라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준엄한 얼굴로 꾸짖었다.

"손발을 씻은 물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라훌라야, 너도 이 그릇과 같다. 사문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마음 속에 도를 뒤엎 짓이 없으므로 더러운 물을 담았던 그릇과 같은 것이다.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을 담을 수는 없느니라."

부처님은 라훌라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준엄한 얼굴로 꾸짖었다.

오계상경-15

말이란 진실과 믿음이 생명력이다. 거짓말에는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고,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망어(妄語)와 꾸며대는 말(綺語), 험담과 욕설(惡口), 이간질하는 말(兩舌)의 네 가지가 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듣기 원하는 것을

없다면,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하고, 보았다면 '보았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도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십대 제자의 한 분인 밀행제일(密行第一)은 열 살쯤의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고 사미가 되었다. 어릴 때 라훌라는 장난이 심해 때때로 사람들이 찾아와 부처님이 계시나 물으면, 계산 때는

험담·폭언은 대립·불화 낳고 따뜻한 말은 평화·화해 가져와

"너는 사문으로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괴롭혔다. 그 결과 누구에게도 정하게 갖지도 않고 계행을 지키지도 않는다. 삼목의 때를 가슴에 가득 안고 있어 마치 이 물과 같이 더럽혀져 있다."

부처님은 그릇의 물을 버리게 한 후 물었다.

"너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

"너는 사문으로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괴롭혔다. 그 결과 누구에게도 정하게 갖지도 않고 계행을 지키지도 않는다. 삼목의 때를 가슴에 가득 안고 있어 마치 이 물과 같이 더럽혀져 있다."

부처님은 그릇의 물을 버리게 한 후 물었다.

"너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

제일의 제자가 되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마침내는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상처를 주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말, 빈정대는 말, 모략, 중상하는 말은 대립과 불화를 유발하지만, 심세하고 부드럽고 사랑과 친절이 담긴 따뜻한 말은 우리에게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게 한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에서 '바르게 말하기'를 배우며 다시 이렇게 서원하며 자신을 살펴야 한다.

"부주의한 말과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야기되는 고통을 인식하고, 사랑스런 말을 하고 남의 말을 새겨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다른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다른 이의 고통을 없애 줄 것을 서원한다. 말이 행복과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진실하게 말하기를 배우고 자신감과 기쁨, 희망을 일으키는 말을 쓸 것을 서원한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퍼뜨리지 않을 것이며, 잘 모르는 일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분열과 불화를 야기하는 말을 삼갈 것이며,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분열하고 깨질 말도 하지 않을 것을 서원한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고 화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서원한다."

(해인총림 월원장)

"자기 마음의 등불 밝혀 악과 죄 짓지 마세요"

인간의 인격은 육체와 정신 그리고 생리와 심리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졌다 하겠습니까. 이 이중적 구조를 집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부단한 노력으로 분명한 자기 중심을 세우는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운용하여 육체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다스릴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론이 갖가지로 대두되는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불교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육신이 아무리 유한한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천이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연히 느낄 수 있는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상상적 손이 가 미칠 수 없을 만큼 깊게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지며 오묘해지는 것을 같은 날 같은 시에 발심(發心)하여 불법을 따른다 하여도 그 깊이와 넓이의 차원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특정한이나 절대자가 하나의 교과서적 문제를 들고 교과서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열과 성 그리고 의지와 정성이 굳게 뭉쳐져 쌓아가는 거대한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에 배박하고 강의술이 뛰어난 남을 설득하는 힘이 유세하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가 그만큼 깊고 또 강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그가 가진 사상의 보조 역할은 충분하지만 지혜를 밝히는 불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성(內省)이나 반성(反省)을 들먹거리곤 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참회(懺悔)라고 일컫는 이것은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믿음으로 가는 안내역이라 하겠습니다. 갖가지 유형의 악순환이 거듭될수록 누구에게도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업소감(公業所感, 공동책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반성(反省)이라 이를 수 있는 참회입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 부끄러움의 티가 끼여들지 않고 불안한 마음의 그림자가 일렁거리지 않게 하는 일, 이것은 참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참회에서 한발짝 나아가는 정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안에 굳건한 믿음의 기치를 세워, 더욱 좋은 마음에 광명세계를 안락으로 비치게 하여 악을 두려워하며 죄를 피하고 더 나은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한 믿음을 다져 나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 계로 나아가는 초석이고 불성을 찾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리=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범외중계

경국사 거사림회

(2000년 5월 21일)



중본스님 (경국사 주지)

늘 허물 반성·참회하고 의지·정성으로 정진하면 믿음과 인격완성에 도달

돈황 옛문서 현대인에 맞게 재해석

프랑스 불교학계는 몽골 지역의 17번 동굴에서 나온 고대 경전을 연구하면서 돈황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이 동굴에서는 약 5천여 장의 중국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경전과 수 백여 장의 그림이 발굴되었고, 현재 이들 경전과 그림은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벨기에, 페테스브르크, 교토 등지에서 연구되고 있다.

프랑스는 1944년 디미에비르(Demieville) 박사가 파리대에서 경전에 담겨 있는 종교성과 문화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 것이 돈황학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후 장 피에르 드레그(Jean Pierre Dregé) 박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경전에 대한 번역과 연구가 진행되면서 독자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1980년에는 마리에 로스(Marie Rose) 박사에 의해 이미 3천여 장에 달하는 경전의 번역과 색인 작업을 마쳤고, 현재 주석서 번역과 8천여 점의 도자기 파편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돈황 문서'를 원전에 가깝게 번역할 수 있는 학자는 15명 안팎이라고 한다. 고(古) 문

세계의 불교학 <21> 프랑스 ④

자를 읽을 줄 아는 것과 번역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돈황학의 성과는 놀라움 그 자체다. 프랑스 불교학계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학문 성과와 그것의 토대가 되었던 두루마리 경전과 도자기 파편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 열의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불교예술품을 연구하고 있는 제라투어 아디올(Zelatore Aieul) 박사의 '보존 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는 프랑스 돈황학계 관련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아디올 박사가 이 프로젝트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보존 사업은 독일인 스타인(Stein, 1862~1943) 박사가 몽골 지역 17번 동굴에서 발견, 현재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두루마리 경전과 도자기 파편에 대한 연구 외에도 슬라이드 작업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보존 사업'은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들 유물 관련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프랑스 불교학자들은 특히 이 사업에 힘입어 한반도 차이를 표준화해 후학들의 학문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또 고문헌의 현대적 해석과 출판에 시도를 프랑스 불자들에게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경전 3천여장 번역·색인 마쳐 이공계 학자도 고서연구 동참

이외에도 보존 사업에는 화학·미생물과 같은 이공계열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루마리 원전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제라투어 아디올 박사는 "보존 사업은 19세기 초에 수집된 불완



몽골지역 17번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경전과 그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인 프랑스·영국·중국인 학자들.

유럽불교학의 특징은 불교학 주제를 세분화하고 또 전문화함으로써 중보연구에 따른 학문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인데, 바로 프랑스 불교학계의 '돈황 유물 보존 사업'은 이 같은 유럽 불교학계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하는 문헌 작업 이외에도 연과 학문 분야의 끊임없는 교류로 경전 연구의 깊이를 더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계가(齊家: 집을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둘째 부(富: 부와 귀)·셋째 강녕(康寧: 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길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술효소정액(松壽藥精)」, 「술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분사 식품제조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까)와 감초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변이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대구여래원

불로화정 본포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에 의료법인 태평재단은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 1천명 수용의 식당, 900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과 영안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진보의학 보살은 하루에 밤낮으로 중생의 고난을 구해주시는 천수관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온갖 죄업이 소멸하는 대비주(大悲呪: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대비심다라니의 준말)를 천천 읽고 무릎이 꿇고 고름이 나도 하루3천배를 하면서 3년간 기도정진 하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침과 약초를 받은 후에 인연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도 이들을 치료하니 본인이 알 정도로 진통도 없어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게 되어 일주일 치료후에 완치된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본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무료치료 하오니, 전국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단, 완치된 분은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시설확장과 대적불사에 거금보시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여야 합니다.)

의 료 효성양방 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천면 덕천리 산 8-4